

'2025 나주영산강축제' 영산강 새로운 이야기, 다시 흐른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2025 나주영산강축제'를 개최한다.

영산강의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농업과 정원, 마라톤을 결합한 통합축제로 한층 풍성해진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 시즌 2'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나주농업페스타(10. 8. ~ 12.),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10. 8. ~ 29.),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10. 12.)가 함께 열려 축제의 규모와 즐길 거리를 더욱 확대한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영산강 주제관'이다.

생태,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체험형 전시와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영산강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0월 8일 개막... 농업, 정원, 마라톤까지 통합형 축제 생태,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온 세대가 함께 즐기는 가을 대표 축제 자리매김 나서

개막 첫날에는 나주의 역사 인물인 장화왕후와 고려 태조 왕건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왕후, 장화'가 주제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루나와 이충주가 출연해 나주의 역사 인물을 새롭게 풀어낸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콘텐츠도 강화했다.

어린이 직업 체험 '키자니아 in 나주', 인기 캐릭터와 함께하는 '뽀로로 & 배베핀

싱어롱쇼', 보드게임 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다.

전통문화 공연도 풍성한데 천연염색패션쇼, 마당극 '나주삼색유산놀이', '동강 봉추 들노래', 무용극 'K-풍류 나주의 전설: 창명(淸明)' 등이 무대에 올라 지역 문화의 멋과 흥, 깊이를 선사한다.

가을 정취를 더하는 코스모스 단지와 영산강 횡단 보행교는 영산강 변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축제 기간 매일 밤 열리는 '영산강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김용빈, 최정원, 마이클



리, 김호영, 라비넨스, 린, 박지현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채운다. 나주/이명열 기자



함평천 팜파스 꽃길, 힐링 명소로 부상

전남 함평군의 숨은 관광 보석, 함평천 팜파스 꽃길이 올여름에도 장관을 이루며 발길을 끌고 있다.

함평군은 2020년부터 함평천 일대를 중심으로 꽃길을 조성해 왔으며, 현재는 약 2.4km 길이의 팜파스그라스 산책로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은빛 물결처럼 흘러드는 팜파스그라스와 푸르른 함평천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유럽의 자연 속을 거니는 듯한 감성을 선사한다.

이곳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자연 거길, 포토존, 피크닉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힐링 공간으로 발전하며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입소문이 퍼지면 사진 촬영을 즐기려는 청년 여행객들의 방문이 크게 늘고 있으며, 세계적 관광지로서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함평천은 자연과 문화, 관광이 함께 흐르는 복합 공간"이라며 "팜파스 꽃길을 시작으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의 피로를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만끽하기 위해 함평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함평/전광춘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8/21~12/10일 삼호 앞바다에서 '갈치낚시 행사'를 개최한다.

어업인의 소득 증대, 관광객의 특별한 낭만을 위한 이 행사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조업 금지지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내용.

은빛 갈치를 선상에서 낚는 짜릿한 손맛, 조식소 불빛이 반사되는 가을 밤바다의 낭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이미 지역 대표 낚시터이자 관광명소로 이름이 자자하다.

영암 삼호조선소 불빛 아래서 은빛 갈치 낚아볼까

영암군, 8/21~12/10일 갈치낚시 행사... 사전 합동안전점검

지난해 같은 시기 개방된 갈치 낚시터에는 8,700여 관광객이 다녀갔고, 영암 어민은 6억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영암군은 지난해에 이어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갈치 낚시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13일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와 함께

사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행사 참여 어선의 안전 장비 등을 살폈다. 갈치 낚시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허가를 받은 12척의 배 위에서만 할 수 있다.

갈치낚시 행사에 참여하려면 삼호소형어선물양장에 주차하고, 삼호어촌계장(010-9382-2180)에게 연락하면 선상 낚

시배와 연결해 준다.

쓰레기투척·음주·흡연 등 위험 행위 및 방파제 낚시 금지 등 영암군은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당부를 요청했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갈치낚시 행사는 지역 어민의 소득 증대, 해양레저 관광자원 확대 등을 위한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다. 삼호 앞바다를 찾은 영암군민 등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늘 안전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장성군이 봄·가을 축제로 유명한 황룡강에서 '여름 이벤트'를 마련해 화제다.

군은 오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썸머 나잇 피크닉(summer night picnic)'을 연다.

이름 그대로, 한여름 밤에 강변에서 만끽하는 '시원한 피크닉'이 콘셉트다.

잔디광장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장소는 황룡정원(장성읍 기산리 26-1) 야외무대로, 저녁 6시 45분부터 시작된다.

첫날인 22일은 댄스팀 '업로드'와 여성 2인조 '킹스밴드' 공연, 이디엠(EDM) 파티 등이 이어진다. 피크닉의 '하이라이트'는

1000원 맥주 X 소찬휘... 장성군 '썸머 나잇 피크닉' 대박 조짐

22~23일 저녁 황룡강 황룡정원... 한여름 밤 강변축제

소찬휘다. '티어스', '현명한 선택'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실력파 가수다.

도요 일 저녁에는 달지밴드, 색소폰 연주자 '더블유이저', 가수 '소라', 축제의 흥을 책임질 '원플러스원' 공연이 관객과 만난다.

화려한 '멀티미디어 레이저 쇼'도 펼쳐진다. 피크닉 기간 운영되는 '천·천·천 이벤트'도 기대를 모은다.

1000명에게 생맥주 1000잔을 1000원에 판매한다.

장성군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4인 테이블 180개를 준비하고, 냉방버스와 의료인력도 비치할 계획이다.

인파가 집중될 것에 대비해 행사장 주변 교통도 통제한다.

김한중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편의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장성 황룡강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역 주민들이 전통 국악을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2025 하반기 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이며, 강좌는 9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2시간씩 운영된다.

수업은 곡성군 육과면 사포골문화센터 3층에 위치한 곡성국악전수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하반기 국악교실은 ▲장구(기초·중급) ▲농악 ▲판소리 ▲한국무용 ▲가야금 ▲민요 ▲해금 등 총 7개 강좌로 구성되며, 곡성국악전수관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지도한다.

곡성국악전수관 "2025년 하반기 국악교실" 수강생 모집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방문 또는 전화(061-360-8456)로 신청순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국악교실은 2023년 시작 이후 매년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우리 소리를 배우며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국악에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국악전수관은 지난 8월 4일부터 9일까지 '2025 여름방학 청소년 국악 특강'을 운영해 초등학교 15명이 장구·가야금·해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8일에는 발표회를 개최하며 학생들이 5일간 배운 실력을 가족과 친구들과 앞에서 선보이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곡성국악전수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61-360-8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이경수 기자

강진군 '놀GO! 뛰GO!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청소년편 호응

VR체험·서바이벌게임 등 즐길 거리 가득한 하루

강진군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하나로 14일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에서 '놀GO! 뛰GO!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놀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팝업놀이터 청소년편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됐다.

청소년수련관 3층 대강당에서는 VR 모션인식 스포츠, MR 양궁, 레이저 서바이벌이 진행되며, 청소년문화의집 1층 다목적강당에서는 AI 캐리커처 포토부스, 로보축구, 4족 로봇체험 등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현재 강진을 서성리에 건립 중인 매편한센터의 사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군은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를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나 마을로 직접 찾아가 단순히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또래와 어울리며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진/김민행과장은 "지역의 지리적 한계로 문화·여가 경험이 적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체험과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소년시설편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강진국민체육센터 제1실내체육관에서 어린이 팝업놀이터가 열린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시리즈를 이어가며 지역 내 모든 아동·청소년이 고르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현금성 정책뿐만 아니라 돌봄·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군 어린이 팝업놀이터가 열린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시리즈를 이어가며 지역 내 모든 아동·청소년이 고르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현금성 정책뿐만 아니라 돌봄·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현금성 정책뿐만 아니라 돌봄·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